

먹거리·놀거리 풍성… 기다렸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강진군, 12일 개장식…트로트 가수 안성훈·미쓰김 등 흥겨운 무대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야간엔 LED 바다분수 등 화려

제9회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오는 12일 강진 마량항 중방파제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올해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신선한 수산물은 물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개장식은 12일 오후 2시 행사장 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성공 기원 퍼포먼스와 함께 포포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의 현장 녹화방송으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며, 미스터트롯2 TOP1 안성훈, 미스트롯3 TOP4 미쓰김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AI캐릭터 변환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디즈니·지브리풍의 캐릭터로 변신하는 이색 체험을 제공하며, 현장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도토리 캐리커처 또는 소정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스탠데코를 활용한 다양한 포토존을 배치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와 신

선한 수산물 요리 등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돼 맛있는 음식과 함께 신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기존 관람석 중심의 공연 방식에서 벗어나 야외 테이블이 배치된 새로운 무대 구성을 도입해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마량 전망대에서는 원데이 클래스와 시음회 등 특별 이벤트가 준비 중이다. 루프탑 공간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까막섬과 고금대교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느낄 수 있다.
야간에는 미디어파사드와 LED바다분수가 어우러져 마량항의 밤을 환상적으로 수놓는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연계하면 신선한 수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새로워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체험, 공연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오는 12일 강진 마량항 중방파제 일원에서 막을 연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강진군 제공>

문화·여행·체험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

장흥군, 목공체험 프로그램 15명 참여…10월까지 프로그램 다채

장흥군이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과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인프라 설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사업의 시작을 알린 프로그램은 지역특화사업인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계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1회기에는 15명이 참석해 나만의 정리수납함을 제작했으며, 2회기에는 노벨문화도시 장흥 출신 작가 작품의 한 글귀를 목판에 새기는 우

드버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뉴스포츠, 트래킹, 문화예술프로그램관람, 스포츠경기관람, 캠핑, 숲으로 떠나는 마음성장여행, 목공, 코딩, 함께 즐기는 청소년 축제, 장흥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활동, 장흥지역내 문화특구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나 장흥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프로그램별 신청기간 상이)할 수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영농철 앞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행렬

나주시, 상반기 660명 도입…하반기까지 800명 운용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나주지역 농촌에 일손을 보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 34명에 이어 4월 들어 최근 공공형 계절근로자 20명을 포함한 총 59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 절차를 거쳐 나주에 도착했다.
시는 환영식을 갖고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안내와 인권 강화 교육, 외국인 등록을 위한 마약 반응검사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들을 환영했다.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형 계절근로자 60명

과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600명을 포함, 총 660명의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하반기 140여명을 더해 총 800명을 운용할 계획이다.
라오스 계절근로자에 이어 17일엔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71명이 나주로 올 예정이다. 이 중 40명은 나주배 영농현장에서 일할 공공형 계절근로자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나주에서 농업기술과 소득을 얻고 성실한 근로를 통한 계속 고용으로 농촌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목표한 바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문화·예술·관광 융성하는 화순 만들 것”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구종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화순군은 구종천(62) 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이 제2대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3월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구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구 대표이사는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호남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광주시 대변인,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예술과 축제 현장을 두루 거친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구종천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분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구종천(왼쪽)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화순경찰서장, MZ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

화순경찰청은 8일 서장 집무실에서 'MZ세대 직원과의 세대 공감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MZ세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고충 청취, 그리고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승명 서장을 비롯해 20~30대 젊은 직원 10명이 참석해 조직문화와 근무한

경, 업무 효율성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장승명 화순경찰서장은 “조직의 미래는 MZ세대 직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출발한다”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참여형 조직문화 구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피톤치드 뽐뽐~ 축령산 체험관광 활성화 힘 모은다

장성군-국립장성숲체원 협약
산림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등

장성군과 국립장성숲체원이 축령산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성군과 숲체원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축령산 관광자원 체험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광자원 연계사업 추진 ▲산림자원 활용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기타 사업에 필요한 교육·홍보활동 등이다.
협약을 통해 방장산 국립장성숲체원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축령산에서도 펼칠 수 있게 됐다.



장성 축령산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편백나무 조림지다. 총 4개의 등산코스과 하늘숲길 전망대, 구름다리, 금곡영화마을, 민박촌, 관광농원 등을 갖추고 있다.
장성군은 주차장 확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비 사업인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대한민국명품숲기념관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편백숲 인근에서 천연비자나무 숲 조성도 시작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치유관광 명소인 장성 축령

산을 국립장성숲체원 프로그램이 더해져 한층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하게 됐다”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오래된 요식업소 산뜻하게…31곳 환경 개선

14일~18일 신청서 접수

주방·홀, 업소별 최대 500만원

나주시가 위생적인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도 요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2025년 요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보건소 음식문화팀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1곳으로 영업 개시 1년 이상에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 업소에 대한 분야별 지원 규모는 주방·홀 등 노후 영업장 환경개선 최대 500만원, 입식 테이블 교체 최대 40만원(자부담 50%), 장애인 경사로 설치 최대 80만원이다.
올해부터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영유아 전용 의자 구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업소 공간 분



나주시 지원을 받아 좌식테이블(왼쪽)을 입식(오른쪽)으로 교체한 요식업소 내부 환경 개선 모습.

리·구획 공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선정된 업소들은 향후 서비스 질제고 향상과 먹거리 신뢰 제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함평군,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교실’

거동 어려운 어르신 대상 고혈압·당뇨병 등 예방 교육 8회

함평군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역 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 교실은 어르신들이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는 등 자가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자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 예방에 필요한 실천 방법을 배우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건강증진 효과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 군은 라텍스 밴드를 활용한 근력 강화 운동과 아로마 발 마사지 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실습도 함께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육은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균등한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